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보은군 **보 도 자 료**

■ 보은군 기획감사실 공보팀(☎540-3037)

■ 2021년 9월 10일(금)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군,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내방수리 주민에게 큰 호응

- 지난달까지 930대 소형농기계 수리 완료

자료문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장 정회진(☎540-5751)
담당자 오원석(☎540-5752)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가 올해 3월 2일 회인면 신문리에서 시작해 지난달까지 152개 마을을 대상으로 86회에 걸쳐 추진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금까지 농기계 순회수리를 통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기 498대, 예초기 170대 등 모두 930대의 농기계를 수리해 729명의 농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내방수리도 병행해 경운기 325대, 예초기 124대, 트랙터 111대 등 총 791대의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농기계를 수리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농기계 자가 정비방법 및 농기계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수리이후 사후관리까지 운영해 많은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앞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는 11월 24일까지 66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 될

예정인데 교통이 불편하고, 농기계 수리점과 거리가 먼 취약지역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지난달까지 1,125농가를 대상으로 3329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임대료 50%감면을 통해 4,235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뒀다.

홍은표 소장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내방수리 서비스는 농기계 수리 뿐 아니라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며 “농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농기계 순회수리 및 내방수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보은군, ‘복지멤버십’ 가입 한번으로 평생 나에게 필요한 복지사업 안내 받자

자료문의 주민복지과 희망지원팀장 김현정(☏540-3841)
담당자 김형정(☏540-3842)

보은군은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전에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이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65세를 앞둔 국민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기초연금 사업 신청을,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는 아동수당을 신청 안내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온라

인 신청(http://www.bokjiro.go.kr)과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사전 안내 이후 일정 기간 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등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과 연계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인해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거나, 방법과 절차가 어려워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군민들이 복지멤버십 가입 한번으로 복지사업관련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고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보은군 회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명절맞이 다문화가족 이웃사랑 나누기

자료문의 회남면 복지민원팀장 조덕희(☎540-4251)
담당자 박수현(☎540-4252)

보은군 회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류중은, 송선호 회남면장)는 지난 9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내 다문화 가족에게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다문화 가족에 밀폐용기세트, 칼세트, 전기모기채 등으로 구성된 생활용품을 13가구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류중은 공동위원장은 “다문화 가족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코로나로 인해 부모 형제들을 뒤로하고 외롭게 추석 명절을 보낼 다문화 가족에 작게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

다.

송선호 회남면장은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그리워할 다문화 가족에 이웃의 따뜻한 정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용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문화 가족이 우리 면에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